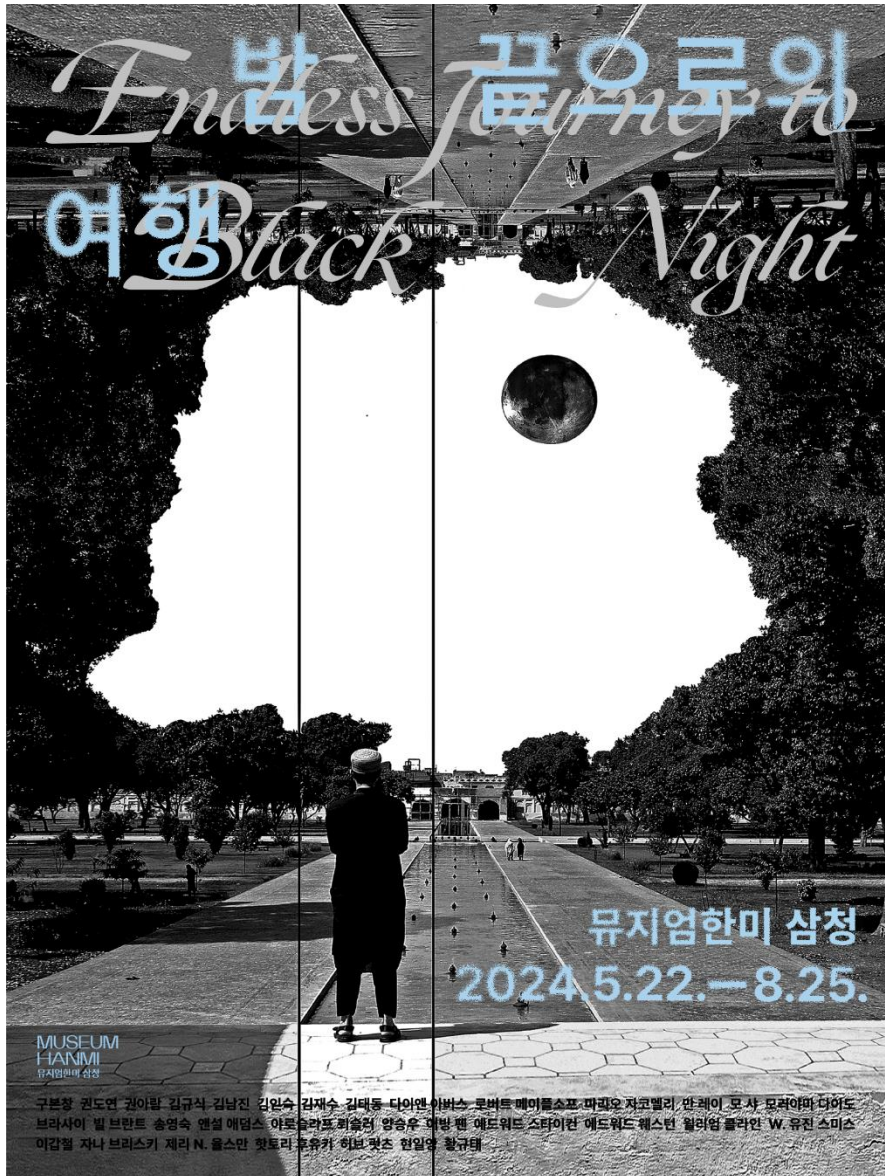


뮤지엄한미 삼청 기획전

## 《밤 끝으로의 여행》 개최

2024. 5. 22. (수) ~ 8. 25. (일)



■ '밤'과 '무의식'이라는 주제 아래,

뮤지엄한미 주요 소장품을 기반으로 구성한 기획전 개최

■ 어둠과 의식 너머에 봉인되어 있던 심연의 풍경을 조명하는

국내외 작가 32명의 작품 100여 점 공개

## 전 시 소 개

■ 뮤지엄한미(관장 송영숙)는 '밤'이라는 주제 아래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으로 구성된 기획전 《밤 끝으로의 여행》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2024년 5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뮤지엄한미 삼청에서 열리며, 32명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 이번 전시는 뮤지엄한미의 소장품과 개인 및 기관 대여 작품들로 구성했다. 지난 20년간 뮤지엄한미가 수집해 온 1900년대 초반의 고전작품부터 동시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아울러 소개한다. 미국 회화주의와 모더니즘 사진의 전형, 유럽 아방가르드와 뉴 비전 운동의 소산, 그 영향 아래 만들어진 한국 전후 시대의 실험 사진과 국내외 현대 사진을 포괄한 사진들을 포함한다.

■ 참여작가: 구본창(1953~ ), 권도연(1980~ ), 권아람(1987~ ), 김규식(1972~ ), 김남진(1957~ ), 김재수(1929~2006), 김태동(1978~ ), 다이앤 아버스(1923~1971), 로버트 메이플소프(1946~1989), 마리오 자코멜리(1925~2000), 만 레이(1890~1976), 모 샬(1978~ ), 모리야마 다이도(1938~ ), 브라사이(1899~1984), 빌 브란트(1904~1983), 송영숙(1948~ ), 앤설 애덤스(1902~1984), 야로슬라프 뢰슬러(1902~1990), 양승우(1966~ ), 어빙 펜(1917~2009), 에드워드 스타이켄(1879~1973), 에드워드 웨스턴(1886~1958), 윌리엄 클라인(1926~2022), W. 유진 스미스(1918~1978), 이갑철(1959~ ), 자나 브리스키(1966~ ), 제리 N. 울스만(1934~2022), 핫토리 후유키(1955~ ), 허브 릿츠(1952~2002), 현일영(1903~1975), 황규태(1938~ )

■ 전시는 사진가들이 지난 한 세기동안 카메라로 담아온 의식 너머의 풍경을 4개의 소주제로 구분해 '밤의 서사'로서 소개한다. 소주제는 밤이 가진 특징 1) 녹투라마, 2) 무의식의 세부, 3) 꿈-작업: 압축과 전위, 4) 어둠을 삼킨 밤으로 나뉜다.

■ 'Part1. 녹투라마'는 이번 전시의 진입로 역할을 한다. 밤이 되면 야행성 동물들이 특화된 신체 감각과 기술을 동원하듯, 관객도 감각이 열리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섹션을 감상했다면 하는 기획의도를 담았다. 앤설 애덤스의 〈뉴멕시코 헤르난데스의 월출〉은 광활하게 펼쳐진 뉴멕시코의 장대한 풍광만이 아니라 그 안의 세부사항들(마을, 산맥, 협곡의 능선과 운무 그

리고 달의 문양)의 묘사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이 작품을 중심에 두고 양측에서 권도연과 모리야마 다이도의 배회하는 들개가, 자나 브리스키의 밤 곤충이 어둠 속 한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한편, 브라사이의 <밤의 파리>연작, 이갑철의 <도시징후>연작, 그리고 에드워드 스타이컨의 <플랫아이언 빌딩>은 짙은 어둠 속 고요하고 적멸한 도시의 풍경들을 보여준다.

■ 전시의 제1부와 2부를 연결하는 개방 수장고에서는 '어둠 속의 실루엣'을 소개한다. 이 파트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포토그램 기법을 이용해 제작한 사진들로 구성했다. 암실에서 감광지와 광원 사이에 물체를 놓고 노광을 주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포토그램은 가장 직관적인 사진 기법이다. 만 레이의 레이요그래프, 현일영, 야로슬라프 뢰슬러의 기하학적 추상의 포토그램, 그리고 김재수의 펜듈럼 형상이 어둠 속에서 즉물적으로 드러난다.

■ 'Part2. 무의식의 세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의 충족과 결핍, 기쁨과 고통, 불안을 육체를 통해 통렬하게 보여준다. Part2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제작된 고전 작품들을 망라하였는데, 여성과 남성의 신체 일부 혹은 그 신체가 연상되는 오브제들(꽃잎, 달걀이 든 유리그릇, 깃털, 조개, 피망 등)을 담은 사진이 다수다. 프레임 바깥으로 비스듬히 기운 흑인 남성의 뒤통수는 에로틱한 형상이다. 브라사이의 <트랜스뮤테이션>연작은 사진 위에 여성의 육체를 드로잉하여 성욕의 대상으로 갈구하는 작가의 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핫토리 후유키의 거울을 보는 여성의 누드 초상은 여성의 신체를 대하는 남성의 에로틱한 시각을 전복시킨다. 제리 N. 윌스만의 포토몽타주 사진들은 여성의 신체나 그 일부가 사진가로 대입되는 남성의 손안에 속박되어 있다. 이처럼 신체 사진은 언어로는 설명 불가능한 성욕의 증상으로 읽힐 수 있다.

■ 'Part3. 꿈-작업: 압축과 전위'에서는 낮 동안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욕구가 어둠과 함께 격동적으로 분출하는 양상을 꿈의 작업을 통해 살핀다. 꿈은 은밀한 욕망의 분출구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걸 대리 충족시켜 준다. 그래서 꿈은 욕망이 내재한 무의식의 발로이자 좌절되고 유보된 것에 대한 소원 성취다. 한편, 꿈의 내용은 기이하다. 무의식의 욕구가 의식 위로 솟구쳐 나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꿈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결함이 많은 묘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위장과 은폐를 조건부로 분출하는 무의식의 욕구는 끊임없이 왜곡되고 망각된다. '압축'와 '전위'라는 두 공장장의 지휘 아래 꿈-작업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Part3에서는 두 존재가 꿈-작업 안에서 만들어내는 긴장과 균형, 파열의 리듬을 공감각적으로 구현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 'Part4. 어둠을 삼킨 밤'에는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의 증상들로 읽힐 수 있는 사진들을 걸었다. 싸늘한 긴장감, 공허감과 불길함 등 불편한 심상을 반복하여 투사한 사진들, 죽음과 끝을 암시하는 표상으로 채워진 사진들이 전시의 마지막까지 펼쳐진다. 김태동의 <Day Break>연작은 적막한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마주친 인간군상을, 그리고 마리오 자코넬리의 <12월 31일>과 <시를 위하여, 자화상>연작은 지나간 삶에서 채집한 이미지들을 암실에서 확대기를 사용해 포토콜라주하여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몽상적 이미지를 담았다. 전시의 가장 마지막에는 W. 유진 스미스의 <후안 카라 트루히요의 경야>와 송영숙의 <환희>가 죽음 충동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이처럼 전시는 관객에게 열린 여운을 안겨주면서 끝난다.

■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 전시연계 강연 그리고 관람객 참여 상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개막주간에는 참여작가 모 샬와 자나 브리시키를 초청하여 두 작가의 작업 방식과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이후 전시와 연계하여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강연 및 세미나를 포함해 '밤의 서사'를 주제로 하는 전시에 어울리는 여러 프로그램이 전시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아티스트 토크

---

《밤 끝으로의 여행》의 참여작가 모 샤(Mo Shah) 그리고 자나 브리스키(Zana Briski)를 초청하여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두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여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본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작가별 토크로 구성되며, 순차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 1부: 모 샤

2부: 자나 브리스키

일시: 5월 24일(금) 오후 7시

장소: 뮤지엄한미 삼청 야외 정원

비용: 무료(전시 관람료 별도)

아티스트 토크 참여작가 프로필



모 샤(Mo Shah, 1978~)는 파키스탄 출신의 시각예술가로 뉴욕, 브뤼셀, 런던, 홍콩에 거주했으며 현재는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의 다양한 문화 경험은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모 샤의 작품에서는 상징주의적 요소가 두드러지며, 작가의 광범위한 관심사를 아울러 서로 다른 문화들이 자아내는 긴장감을 내면화한다. 작가의 사진 이미지는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물과 전통을 하나로 모아 문화와 역사를 재구성하고, 다층적인 서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통합된 서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자나 브리ски(Zana Briski, 1966~)는 영국 런던 출신의 사진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작업 초기에는 동시대 사회문제를 다큐멘터리 시선으로 접근하였다. 작가의 초기작 <사창가에서 태어나>는 1995년부터 10년간 인도 콜카타의 사창가를 담아낸 작품으로,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2005년 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다. 최근 작업은 작업의 주제와 방법론을 확장하여 자연과 생명의 의미와 신비로움에 초점을 맞춘다. 동물, 곤충, 식물 등을 주제로 '포토그램' 기법을 활용해 자연 속 개체를 기록하여 실물 크기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

## 전 시 개 요

---

전시제목 : 《밤 끝으로의 여행》

전시기간 : 2024년 5월 22일(수) ~ 8월 25일(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9길 45)

전시작품 : 사진 및 미디어 작품 100여 점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관람시간 : 화~토: 10:00 ~21:00, 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10,000 원

초·중·고(만 7세 이상~ 18세 미만) 8,000 원

미취학 아동(만 4세 이상~ 7세 미만), 만 65세 이상 5,000 원

만 4세 미만 유아,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소지자 무료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무료

10인 이상 단체일 경우 1인당 2,000 원 할인 (중복할인 없음)

문의 : 뮤지엄한미 삼청 대표전화 02-733-1315, [press@museumhanmi.or.kr](mailto:press@museumhanmi.or.kr)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밤 끝으로의 여행